

9/6/20

설교 제목: 아브라함의 죽음과 그의 후손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5 장 1-18 절

- (창 25:1)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 (창 25:2)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 (창 25: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 (창 25: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 (창 25: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 (창 25: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 (창 25:7)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 (창 25: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 (창 25: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헛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 (창 25: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헛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 (창 25:11)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후예

- (창 25: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 (창 25: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 (창 25: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 (창 25:15)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창 25: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창 25:17) 이스마엘은 향년이 백삼십칠 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창 25:18)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은 75 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을 받은 후 100 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살다가 향년 175 세에 수를 다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자신이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으로부터 400 세겔을 주고 사서 아내 사라를 장사한 마므레 앞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창 25:7) 아브라함의 향년이 백칠십오 세라

(창 25:8)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창 25:9)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창 25: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 대 족장 아브라함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을 계기로 그의 생을 되돌아 보면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언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그가 본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한 것이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와 그의 집안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갈 자로 택하셨고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강권으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오랜 시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셨습니다.

그가 물가운데 거닐지라도 물이 그를 침몰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불이 그를 사르지 못하도록 함께 하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실수를 했을 때에도 그의 걸을 지키며 당신 홀로 언약을 지켜 나가셨습니다.

이 모든 삶의 체험들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유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택함받기 위해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그는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이루어 갈 자로 택함을 받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동시에 그의 후손 곧 이삭과 이스마엘 뿐만 아니라 후처 그두라로부터 얻은 후손들까지 총 망라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록하면서 먼저 후처 그두라로부터 얻은 후손을 기록하고 그다음 이스마엘 후손 그리고 끝으로 이삭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 25:1)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창 25:2) 그가 시므란과 욱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창 25:3) 욱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앓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창 25:4)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창 25:12)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창 25:13)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웃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앓브엘과 밍삼과

(창 25:14)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창 25:15)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창 25:16)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열두
지도자들이었더라

- (창 25: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 (창 25: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문자온대
-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모세가 이같은 순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록한 것은 곁가지들을 먼저 소개하고 끝낸 후
몸통을 소개함으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대인 언약의 후손 이삭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와의 사이에 여섯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후처였는지 첩이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하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대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계대는 인간적인 생각이나 계산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 곧 언약의 후손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 17: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창 17:19)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21: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삭을 약속으로 난 자, 이스마엘을 육체로 난 자라고 일컬었습니다.

(갈 4:22)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갈 4: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 4: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두라로부터 얻은 여섯 아들도 아니고 하갈로부터 얻은 이스마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성령으로 난 자 이삭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삭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독자라고 하십니다.

(창 22: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넘겨 주었고 자기 생전에 이삭과 다른 자손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창 25:5)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창 25:6)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언약의 후손인 이삭에게 넘겨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아브라함에게 큰 부를 주셨던 것도 같은 연유였습니다.

같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을 받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같은 어머니 리브가에서 태어난 형제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심으로 야곱의 계대가 언약의 후손이 됩니다.

(창 25:22) 그 아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 (롬 9:7)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 (롬 9:8)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 (롬 9:9)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 (롬 9:10)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 (롬 9:11)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 (롬 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마음대로 언약을 이어갈 자를 택하는 것이 공평하지 못한 불의한 일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토기장이 비유를 들어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실 권한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 (롬 9:14)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 (롬 9:19)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 (롬 9:20)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 (롬 9:21)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 (롬 9:22)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롬 9:23)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고 말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갈 자로 누구를 택하느냐는 온전히 그분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말입니다.

택함은 사람의 행위로 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함받지 못한 자들은 택함받은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로지 택함받은 언약의 후손들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갈 4:28)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 4:29)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 4:30)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갈 4:31)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택함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택함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입니다.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벧후 1: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며 그것을 굳게 붙들어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